

보도 시점 2026. 7. 8.(수) 12:00 배포 2026. 7. 8.(수) 10:00

국세청,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오늘부터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과 상담하세요

- '26.7.8.~'26.12.23. 약 6개월간 체납 실태확인 실시
- 임광현 국세청장, 7.3. (금) 실태확인원 교육장소 방문하여 직접 강연
- 국세외수입(과태료, 과징금 등) 체납 국세청 일원화하여 실태확인 추진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2026.7.8.(수) 전국단위의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,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 -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.
 - 특히, 국세외수입(과태료, 과징금 등)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,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,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,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.
- 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, 운영·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.
 -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“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,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,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.”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.
 - 한편,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,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-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은 오늘('26.7.8.)부터 '26.12.23.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,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,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.

① 납부 안내와 체납자에 맞는 체납관리 실시

-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,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어 ‘맞춤형 체납관리’를 실시한다.
 - 실태확인 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,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체납액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.
 - ① 국세 체납의 경우,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,
 - ②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,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하여 체납액 조화·납부 가능하다.
 - ③ 변상금,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화·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.
 -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이후,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를 수행한다.
 - 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.
 - ②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.
 - ③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.

② 실태확인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꼼꼼하게

- 국세청은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확보 이후 채용·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.
 - 국세청은 「국세 체납관리단」 2,500명과 「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 3,000명, 총 5,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하여, 평균 경쟁률 4.5 대 1 을 달성하였다.
 - 7.1.(수)부터 7.7.(화)까지 5일간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응대요령,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.

< 체납관리단 준비 진행 경과 >

- ▶('26. 5. 18.) 실태확인원(기간제 근로자) 채용공고(국세 2,500명, 국세외수입 3,000명)
- ▶('26. 5. 18. ~ 26.) 실태확인원 채용 원서접수(평균 경쟁률 4.5:1)
- ▶('26. 6. 24.) 실태확인원 최종합격자 발표
- ▶('26. 7. 1. ~ 7.)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교육
- ▶('26. 7. 8.)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

-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기간 중인 7.3.(금)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 실태확인원들에게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, 새로이 출발하는 체납관리단을 세심하게 챙겼다.
 - 임 청장은 경기 고양 킨텍스를 방문하여 체납관리단의 의미·역할·중요성 및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대면 강연을 하였고, 이는 전국 실태확인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.
 - 강연에서 “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, 재정확보, 일자리창출, 체납정리,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”면서, “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.”이라고 밝혔다.

3 현장에서 시작되는 체납관리 대전환

-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,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, 납부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,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룰 계획이다.
 - 또한, 국세청은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,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	책임자	과 장	천주석 (044-204-4001)
		담당자	사무관	양용환 (044-204-4002) 사무관 김태형 (044-204-4017)
담당 부서	체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용선 (044-204-3041)
		담당자	사무관	모재완 (044-204-3047)

참고 1

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 킨텍스 방문 사진



< 임광현 국세청장이 킨텍스에서 교육현장에 참석한 모습 >



< 실태확인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강연을 경청하는 모습 >



< 임광현 국세청장이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에게 강연하는 모습 ① >



< 임광현 국세청장이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에게 강연하는 모습 ② >

참고 2

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 출범 사진



< 임광현 국세청장이 북대전 세무서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>



< 임광현 국세청장이 출범식에서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격려하는 모습 >